Korea Trade Review (Korea Trade Rev. ; 무역학회지)
Vol. 47, No. 2, April 2022 (pp. 89-101)
https://data.doi.or.kr/10.22659/KTRA.2022.47.2.89

貿易學會誌
ISSN 1226-2765 (Print)

해외 송금 결정 요인: 개도국과 선진국의 비교 분석

윤승환
고려대학교 쟝 모네 EU센터 연구교수

A Comparison of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Remittance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eung-Hwan Yoon[a]
[a]Jean Monnet EU Centre, Korea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7 March 2022, Revised 27 April 2022 Accepted 29 April 2022

Abstract

International remittances play a crucial role in the economic management of each country,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Its functions are diverse, including procurement of foreign currency, serving as a cushion for the balance of payments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by reducing the adverse external shocks, driving economic growth, eas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maintaining macroeconomic stability. However, previous studies on remittances have mainly focused on macro-and micro-economic aspect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remittances in 122 countries over the past 25 years from macroeconomic and educational aspects as well as institutional qualities. In addition, given the fact that almost all of the world's top 10 recipient countries in terms of GDP and total remittance size are developing countrie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separated and analyzed for comparison, assuming that there may be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show that the coefficient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different in four areas: Control of Corruption (CC), Rule of Law (RL), Voice and Accountability (VA), and Regulatory Quality (RQ) among the six institutional variables of interest in this study.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even the same institutions and policies should be applied and implemen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In addition, as suggested by the World Bank, policymakers in all countries should double their policy efforts to lower the costs of remittance and improve access to the financial system for immigrants or dispatched workers to ensure a steady inflow of remittances.

Keywords: Financial development index, Institutional quality, Panel data, Remittances
JEL Classifications: E02, E31, F24, O15

[a] Author, E-mail: yoon9001@korea.ac.kr
ⓒ 2022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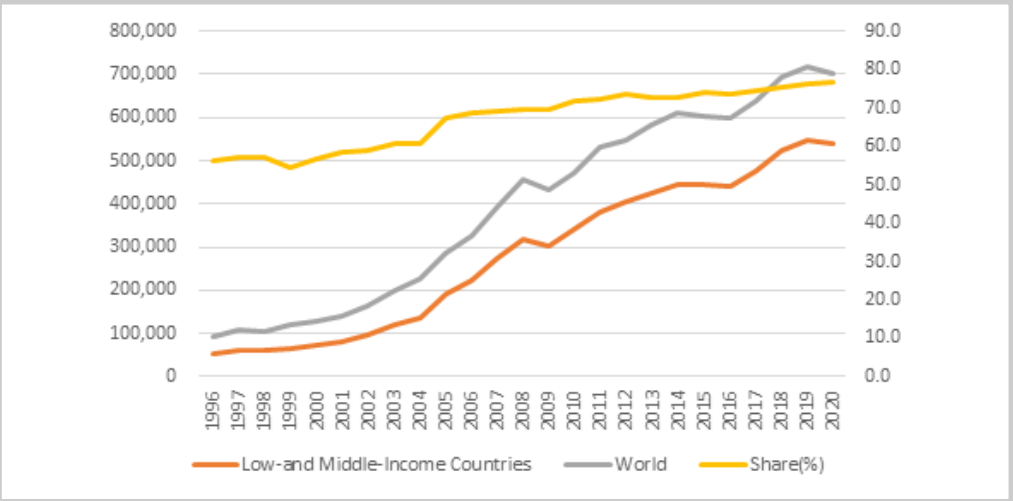
해외 송금은 많은 개도국들에게 외화 조달 및 외환 금융의 주요 통로이자 국제수지와 외환보유고의 문제 발생 시 완충(Cushion)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외부 자금 조달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고 빈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Jouini, 2015; Taylor, 2004). 게다가 해외 송금은 민간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화 획득의 주요 원천이기도 하다(Helbling, Batini and Cardarelli, 2005). 이런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의 해외 송금액 추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Fig.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08년~2009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전 세계적 감염병(Pandemic)으로 지정한 코로나 19 같은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해외 송금은 절대 규모 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동기에서 해외 송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해외 송금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크게 첫째,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이타적 동기, 둘째, 가계가 갖고 있는 기존의 부채 탕감, 셋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혹은 사건 및 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 성격의 송금, 넷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투자 목적의 송금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가족들의 생활을 위한 송금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건, 사고 및 질병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해외 송금이 위 4가지 범주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Sayan (2006)은 해외 송금을 크게 이타적 동기와 투자 동기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 송금에 대한 결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다양한 변수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본국과 이민자 혹은 해외 파견 노동자가 거주하는 국가 사이의 실질 금리나 소득의 차이, 환율 변동성, 송금 비용과 송금 절차의 편의성 등과 정부 이민 정책, 정치적 안정성이 주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Akkoyunlu and Siliverstovs, 2013; Gupta, 2006; McNabb, 1999). 물론 이민 정책이나 정치적 안정성은 정치적 혹은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미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민자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 결혼 여부, 해외 거주 기간, 본국 부양자 수 등이 결정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Melkonyan and Grigorian, 2012; Rapoport and Docquier, 2006). 예를 들어, Faini (1994)는 정치적 안정성, 환율, 금융시장 발전 정도에 따라 송금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고 Koksal and Liebig (2005)는 본국과 이민자 거주국의 소득 수준 차이, 인플레이션, 실질 금리, 경제성장률 외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프리미엄(추가 금액)이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Abdel-Rahman (2006)은 임금과 1인당 소득은 송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Schrooten (2005)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송금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경제성장률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의한 결정 요인이며 자국 내 실업률이 높을수록 송금이 증가하는 관계라는 것을 밝혔다. Ricketts (2011) 또한 명목 GDP,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업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주장했다. Bang, Mitra and Wunnava (2013)는 금융 자유화 정도가 송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고 Schiopu and Siegfried (2006)는 소득의 차이가 주된 요인이라면서,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외 송금은 투자 동기 보다는 가족들을 위한 이타적 동기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렇듯 각국 경제에 있어 해외 송금의 실제 역할은, 특히 중하위 소득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외부 자금 유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이하 ODA)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보다 더 큰 규모로 유입되고 있어 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1] 그리고 송금이 이루어지는 동기

Fig. 1. Remittance Trends of the World from 1996 to 2020 (Unit: US$ million)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World Bank Data (2021).

와 실제 송금의 결정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 혹은 미시적 측면에서 송금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정치적 안정성이나 정부 이민 정책 등을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실제 제도적 측면에서 송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측면의 송금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과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세계 상위 10개 송금 수취 국가들은 모두 중하위 소득 국가들(Low-and Middle Income Countries)이며 절대 규모 면에서도 상위 10개 송금 수취 국가들 중 8개국이 모두 개도국들이다. 이런 현황을 고려하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가용 범위 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송금 결정 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 송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과 실제 전 세계의 송금 현황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송금 결정 요인이 다를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해외 송금 현황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실증 분석에 필요한 분석 모형과 자료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의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함의를 논하고 제5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해외 송금 현황

본 연구의 분석 기간 첫 시작 연도인 1996년부터 전 세계 해외 송금 추이를 살펴보면(〈Fig. 1〉), 송금액의 절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약 920억 달러에서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폭 하락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약 7,000억 달러로 약 7.6배 증가한 것이다. 2019년 약 7,200억 달러까지 송금 규모가 늘어났으나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3% 정도 감소하였다.

〈Table 1〉은 2020년 GDP 비중 기준, 상위 10개 해외 송금 수취 국가들과 2011년부터

1)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 (2021), Recovery: COVID-19 Crisis through a Migration Lens,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35 참조

Table 1. Top 10 Countries of Remittances' Share of GDP and Top 10 Recipient Countries (Unit: %, US$ million)

	Country	Share of GDP		Country	Remittances
1	Tonga	37.7	1	India	717,571.1
2	Somalia	35.3	2	China	625,518.5
3	Lebanon	32.9	3	Philippines	300,711.9
4	South Sudan	29.5	4	Mexico	299,510.4
5	Kyrgyz Republic	29.4	5	France	246,571.2
6	Tajikistan	27.3	6	Egypt	214,517.4
7	El Salvador	24.1	7	Nigeria	210,644.7
8	Honduras	23.5	8	Pakistan	186,667.0
9	Nepal	23.5	9	Germany	162,966.7
10	Haiti	21.8	10	Bangladesh	153,096.7

Notes: Share of GDP denotes remittances as a share of GDP in 2020, and cumulative remittances of 2011-2020.
Source: World Bank (2021).

2020년까지 누적 송금액 규모 기준, 상위 10개 송금 수취 국가를 보여주고 있다. GDP 비중 기준으로 보면(〈Table 1〉 왼쪽) 대부분의 국가가 중하위권 소득 국가들임을 알 수 있으며 전체 GDP 대비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송금액을 받는 국가는 통가(37.7%), 소말리아(35.3%), 레바논(32.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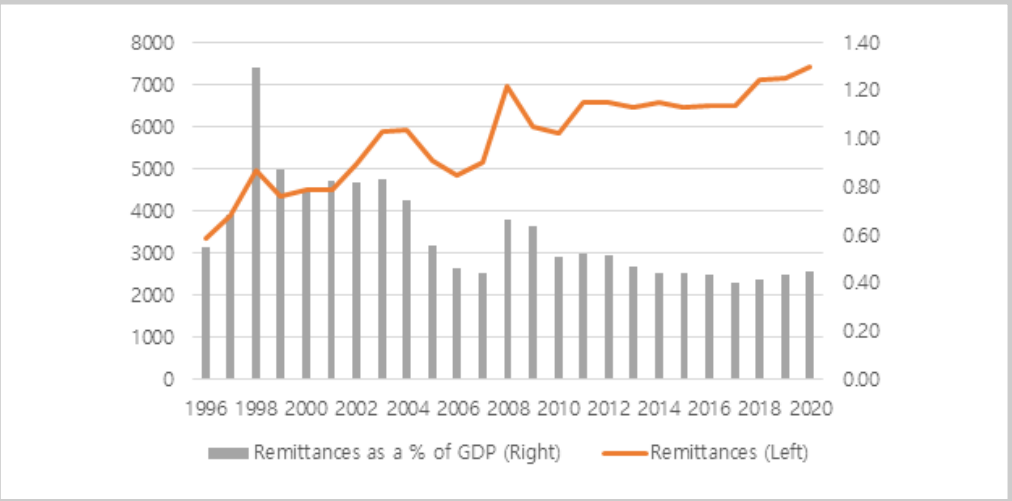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보면(〈Table 1〉 오른쪽) 인도가 약 7,180억 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을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이 약 6,260억 달러, 필리핀이 약 3,00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10년간 누적 기준 상위 10개 국가 대부분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선진국으로서 각각 약 2,470억 달러, 약 1,630억 달러를 해외로부터 달러를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이민과 개발 보고서"(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35)에 따르면 2021년에는 중하위권 소득 국가들에 대한 송금액은 다시 늘어나 약 5,8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약 7.3% 증가한 것으로 현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규모보다는 3배 이상이고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보다 50% 이상 큰 규모이다. 따라서 해외 송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수취 국가들의 소비를 지속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본국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 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실시된 재정 확장 정책과 경기 진작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재기 또는 확대와 고용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의 결과라고 보았다.

〈Fig. 2〉는 한국의 해외로부터 송금액 규모와 한국 GDP 대비 해외 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전 세계 송금 추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해외로부터 송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해외 송금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이타적인 동기로 해석 가능하다.

GDP 대비 해외 송금액의 비중은 1998년 1.3%로 분석 대상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0.8%의 비중에서

Fig. 2. Remittance Trends of Korea from 1996 to 2020 (Unit: %, US$ million)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World Bank Data (2021).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현재 0.45%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송금액 절대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보다 더 큰 규모로 한국 전체 GDP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절대적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분석 모형과 데이터

1. 분석 모형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제도 변수(Institutional Quality) 혹은 거버넌스(Governance) 지수가 해외 송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bbas, Masood and Sakhawat (2017)의 연구 모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추정회귀식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ln(Remit) = \beta_0 &+ \sum_{i=1}^{3}\beta_i \ln(Economic\ variables) \\ &+ \sum_{j=4}^{9}\beta_j (Governance) \\ &+ \beta_{10} FD + \beta_{11}\ln(Education) \\ &+ \beta_{12} GFC + \epsilon\end{aligned} \quad (1)$$

회귀식 (1)에서 하첨자 i는 선진국(23개국)과 개도국(99개국)을 나타내고 t는 1996년부터 2020년도까지 각 연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Remit는 t시점에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송금을 나타낸다.

거시경제 변수는 인구, 1인당 GDP, 인플레이션으로 설정했고 인구는 각국의 시장규모를 대리하는 변수이고 1인당 GDP는 각국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 Index)를 반영한다.

제도 변수 혹은 거버넌스 지수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1996년부터 2020년까지 25개 연도이지만 현재 1997년, 1999년, 2001년 3개 연도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도 총 22개 연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제도 변수는 총 3개 분야로 첫째,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과 관련된 정부의 선출, 감시, 교체되는 과정, 둘째,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량, 셋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역학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준수 의지 등으로 구분되며 각 지수는 -2.5에서 2.5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값이 높을수록 해당 지수가 그만큼 잘 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aufmann et al.

Table 2. Summary Statistics for Developed Countries

Variables	Obs.	Mean	Std. Dev.	Min	Max
Population	506	3.919e+07	6.519e+07	268,916	3.295e+08
per capita GDP	506	44,920	20,375	11,498	123,514
Inflation	506	1.758	1.482	−4.478	12.69
Education	429	113.1	16.60	87.81	163.9
CC	481	−0.0653	0.961	−1.560	2.116
GE	480	−0.0775	0.905	−1.780	2.007
PV	487	−0.0124	0.874	−2.211	1.454
RQ	480	−0.0762	0.966	−2.363	1.933
RL	491	−0.0039	0.997	−2.346	1.923
VA	480	0.0112	1.010	−1.797	1.668
Remittance	506	3,825	4,889	0	26,879
FD	506	0.664	0.238	0	1
GFC	506	0.0909	0.288	0	1

Table 3. Summary Statistics for Developing Countries

Variables	Obs.	Mean	Std. Dev.	Min	Max
Population	2,609	4.432e+07	1.669e+08	78,904	1.411e+09
per capita GDP	2,570	5,747	9,489	101.1	85,076
Inflation	2,319	9.062	87.32	−18.11	4,145
Education	1,653	69.19	28.06	5.932	142.0
CC	2,520	0.00024	0.979	−1.905	2.391
GE	2,513	−0.0054	0.980	−2.475	2.106
PV	2,519	0.0408	1.009	−3.181	1.965
RQ	2,513	−0.0157	1.014	−2.530	2.226
RL	2,553	0.0088	0.989	−2.130	2.037
VA	2,544	0.0507	1.028	−2.313	1.738
Remittance	2,618	2,373	7,526	0	83,332
FD	2,618	0.173	0.172	0	0.787
GFC	2,618	0.0909	0.288	0	1

(2010)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도 변수 혹은 거버넌스에 대한 합치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세계은행에서 개발된 제도 관련 지수는 연구자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연구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3개 분야, 총 6개로 구분되는 제도 변수를 이용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송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FD는 금융개발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를 나타내며 금융시장 발전 정도를 나타낸다. Education은 교육 수준을 대리하는 변수로 중등학교 등록률(Secondary school enrollment)을 의미하고 GFC는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대리하는 더

Table 4. Estimation Results for Developed Countries

Variables	Pooled OLS	Fixed Effects	GLS	Tobit
Population	0.552***	1.547***	0.552***	0.553***
	(0.0337)	(0.453)	(0.0331)	(0.0332)
per capita GDP	0.340***	1.060***	0.340***	0.345***
	(0.120)	(0.0995)	(0.118)	(0.119)
FD	0.899***	2.412***	0.899***	0.903***
	(0.235)	(0.308)	(0.231)	(0.231)
CC	−0.410**	−0.524***	−0.410**	−0.412**
	(0.167)	(0.101)	(0.164)	(0.165)
GE	−0.173	0.356***	−0.173	−0.179
	(0.174)	(0.102)	(0.171)	(0.172)
PV	0.674***	−0.0396	0.674***	0.674***
	(0.0892)	(0.0589)	(0.0877)	(0.0879)
RQ	0.515***	−0.0951	0.515***	0.524***
	(0.139)	(0.0775)	(0.137)	(0.137)
RL	0.162	0.274**	0.162	0.162
	(0.173)	(0.109)	(0.170)	(0.170)
VA	−0.645***	−0.319***	−0.645***	−0.645***
	(0.0875)	(0.0854)	(0.0860)	(0.0862)
Inflation	−0.0394	−0.0228*	−0.0394	−0.0381
	(0.0308)	(0.0121)	(0.0302)	(0.0303)
Education	−0.217	−1.091***	−0.217	−0.210
	(0.337)	(0.227)	(0.331)	(0.332)
GFC	0.133	−0.0304	0.133	0.133
	(0.137)	(0.0511)	(0.135)	(0.135)
Constant	−4.572*	−25.42***	−4.572*	−4.693**
	(2.407)	(6.413)	(2.366)	(2.373)
Obs.	384	384	384	384
R-squared	0.674	0.684		
No. of country	23	23	23	23

Notes: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1, ** p<0.05, *** p<0.01

미 변수로써 2008년과 2009년에는 1, 나머지 연도에는 0을 부여했다.

2. 자료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외 송금(Remittance) 데이터는 IMF 국제수지 통계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각국 통계청 자료 등을 세계은행에서 취합한 것이다.

거시경제 변수인 각국의 인구, 1인당 GDP, 인플레이션, 교육 수준은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제도 변수 데이터는 세계은행의 World Governance Indicator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FD는 금융개발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로 각국의 금융 제도와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금융서비스 접근성,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 및 지속가능성(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IMF에서 취합했다.

위의 데이터를 토대로 UN에서 분류[2]한 선

2) 좀 더 자세한 내용은 United Nations (2022), World Economic Situation Prospects 2022 참조

Table 5. Estimation Results for Developing Countries

Variables	Pooled OLS	Fixed Effects	GLS	Tobit
Population	0.882***	1.388***	0.882***	0.883***
	(0.0275)	(0.249)	(0.0273)	(0.0273)
per capita GDP	0.0997	0.954***	0.0997	0.0999
	(0.0651)	(0.0547)	(0.0648)	(0.0648)
FD	−1.410***	0.501	−1.410***	−1.411***
	(0.332)	(0.332)	(0.330)	(0.330)
CC	0.400***	−0.0646	0.400***	0.400***
	(0.146)	(0.102)	(0.145)	(0.145)
GE	−0.138	−0.0311	−0.138	−0.138
	(0.171)	(0.110)	(0.170)	(0.170)
PV	0.245***	−0.108	0.245***	0.245***
	(0.0773)	(0.0574)	(0.0769)	(0.0769)
RQ	−0.221*	0.324	−0.221*	−0.221*
	(0.133)	(0.0950)	(0.133)	(0.133)
RL	−0.275	−0.205*	−0.275	−0.275
	(0.168)	(0.111)	(0.167)	(0.167)
VA	0.196**	0.00337	0.196**	0.196**
	(0.0836)	(0.101)	(0.0832)	(0.0832)
Inflation	−0.0348***	−0.00154	−0.0348***	−0.0348***
	(0.00593)	(0.00276)	(0.00589)	(0.00590)
Education	1.637***	0.842***	1.637***	1.638***
	(0.135)	(0.130)	(0.134)	(0.134)
GFC	0.179	0.0576	0.179	0.180
	(0.139)	(0.0535)	(0.138)	(0.139)
Constant	−15.15***	−27.27***	−15.15***	−15.16***
	(0.664)	(3.644)	(0.660)	(0.661)
Obs.	1,246	1,246	1,246	1,246
R-squared	0.544	0.576		
No. of country	99	99	99	99

Notes: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1, ** p<0.05, *** p<0.01

진국 23개국과 개도국 99개국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20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Table 2〉, 〈Table 3〉은 실증 분석에 사용된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Ⅳ. 분석 결과

〈Table 4〉와 〈Table 5〉는 각각 선진국(23개국)과 개도국(99개국)에 대한 추정회귀식 (1)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1)열은 통합 OLS 모

형, (2)열은 고정효과, (3)열은 GLS, (4)열은 Tobit 분석을 진행하였다. (2)열의 경우, 하우스만 검정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확률효과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좀 더 적합한 분석 모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 규모와 해외 송금은, 선진국(〈Table 4〉)과 개도국(〈Table 5〉)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인구가 많을수록 송금액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소득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송금과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로부터 송금 또한 많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금융개발지수(FD)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선진국의 경우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임으로써 금융발전 단계가 높을수록 송금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일부 분석 모형을 제외하면, 이와는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임에 따라 선진국과는 다른 관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금융 시스템이 미비할수록 송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본국의 금융시장 접근성과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일부 모형을 제외하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송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도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송금액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국으로 송금할 때 그 송금액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송금에 대한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수준은 금융개발지수(FD)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선진국의 경우 3개의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정 효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송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본국(home country)의 교육 수준이 높다면 소득이 높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송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송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 내의 가족들에게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송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bbas, Masood and Sakhawat (2017)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008~9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외 송금에 미친 영향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

사회경제적 역학 관계를 통제하는 제도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준수 의지를 대리하는 변수로 첫째 부패 방지 수준(Control of Corruption, CC)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부패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송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도국은, 일부 모형을 제외하면, 이와는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부패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해외로부터 송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사익을 위해 남용되는 수준이 높을수록 송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공권력과 계약 이행을 신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법치주의(Rule of Law, RL)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에서 5% 수준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어 시민들의 법령 준수 정도가 높을수록 송금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정효과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부호는 반대로 나타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낮고 계약 이행이 불투명함과 동시에 법령 준수 정도가 낮을수록 송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도를 나타내

는 주장 및 책임(Voice and Accountability, VA) 지수는 투표를 통한 국민의 정부 선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언론 자유 정도를 대리하는 지수인데 이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 일부 모형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는데 이는 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할수록 해외로부터 송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개도국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선진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임으로써 주장 및 책임(VA) 수준이 높을수록 송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선진국들의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잘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송금이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 방식과 송금과의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제도 변수가 해외 송금에 미치는 영향을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이 변수를 포함시켰다.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및 테러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PV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는 일부 모형을 제외하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도 긍정적인 값을 보였는데 정치적으로 안정적일수록 그리고 폭력 및 테러 발생 가능성이 낮을수록 송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역량에 관련된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GE) 지수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와 대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데, 선진국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 정책 집행의 효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송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분야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RQ) 지수는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분석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여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송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일부 모형을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여 민간 분야 개발을 장려하지 못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고 따라서 본국으로의 해외 송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시사점

해외 송금은 강력한 외부 충격 즉, 글로벌 금융위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19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세계은행은 2021년 11월 발표한 '이민과 개발 보고서'에서 해외 송금 규모가 2021년에도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5,8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2022년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도 해외 송금 증가 패턴의 전 세계적 흐름과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송금은 각국의, 특히 개도국들의 경제 운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화 조달, 국제수지와 외환보유고의 완충 역할, 경제성장률 견인 및 빈부 격차 완화, 거시경제적 안정성 유지 등 그 순기능은 다양하다. 하지만 해외 송금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거시 및 미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결정 요인을 분석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5년간 꾸준히 늘어난 해외 송금의 결정 요인을 거시경제적, 교육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또한, GDP 대비 및 절대적인 송금 규모 면에서 전 세계 상위 10개 송금 수취 국가들 거의 모두 개도국이라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시경제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인구와 1인당 소득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구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송금 유입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송금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임으로써 본국으로

송금할 때 송금액의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송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금융 시스템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개발지수(FD)와 교육 수준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FD에 대한 선진국은 금융발전 단계가 높을수록 송금액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지만 개도국은 금융 시스템이 미비할수록 송금액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개도국들의 금융시장 접근성과 금융서비스 제공 역량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외로부터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송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준은 개도국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본국의 가족들에게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송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Abbas, Masood and Sakhawat (2017)는 숙련된 노동자들의 높은 수준의 해외 임금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본국의 교육 수준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 수 있어 그만큼 송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8~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제도 변수 6개 중 부패 방지 수준(CC), 법치주의(RL), 주장 및 책임(VA), 규제의 질(RQ) 등 4개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패 방지 수준(CC)은 선진국의 경우 부패의 정도가 클수록 송금액이 줄어들고 개도국의 경우 부패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송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RL)는 선진국의 경우 시민들의 법령 준수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도국의 경우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 계약 이행의 불투명성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현 및 책임(VA)은 송금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선진국의 경우 송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도국의 경우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질(RQ)은 선진국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도국의 경우 민간개발의 촉진 정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해외로부터 송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및 테러의 가능성(PV)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폭력 및 테러 발생 가능성이 낮을수록 송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효율성(GE)은 개도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선진국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송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들이 거시 및 미시적 경제 변수를 위주로 분석한 것과는 달리 제도 변수가 실제 해외 송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2022년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에 대한 이용 가능한 해외 송금 추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비교 분석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제도 변수와 금융 및 교육 등 정책 변수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본 연구 분석 결과는 같은 제도 및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작년 11월 세계은행의 '이민과 개발 보고서' 제언대로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해외 송금의 꾸준한 유입이 가능하도록 송금 비용을 낮추고 이민자 혹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금융 시스템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비하여 백신 접근성과 보건 서비스 및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bbas, F., A. Masood and A. Sakhawat (2017), "What determine remittances to Pakistan? The role ofmacroeconomic, political and financial factors", *Journal of Policy Modeling*, 39, 519-531

Abdel-Rahman, A. and S. Arabia (2006). "The determinants of foreign worker remittance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Journal of King Saud University*, 18(2), 93-121. Available from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The-Determinants-of-Foreign-Worker-Remittances-in-Abdel-Rahman-Arabia/9dab3c1f2fc89d67fa44ff47773082dc03045709#citing-papers

Akkoyunlu, S. and B. Siliverstovs (2013). "The positive role of remittances in migration decision: Evidence from Turkish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15, 65-94.

Bang, J. T., A. Mitra and P. V. Wunnava (2013).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remittances: Recent longitudinal evidence* (IZA Discussion Paper No. 7497), Bonn: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Faini, R. (1994). "Workers remittances and the real exchange rat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7, 235-245.

Gupta, P. (2006).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remittances: Evidence from Indi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769-2775.

Helbling, T., N. Batini and R. Cardarelli (2005). *Globalization and external imbalances*. Washington, DC: IMF World Economic Outlook

Jouini, J. (2015). "Economic growth and remittances in Tunisia: Bidirectional causal links". *Journal of Policy Modelling*, 37(2), 355-373.

Kaufmann, D., A. Kraay and M. Mastruzzi (2010),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Methodology and Analytical Issu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430), World Bank.

Koksal, E. and T. Liebig (2005). *Principal channels and costs of remittances: The case of Turkey*. Migration, Remittances and Development, 103-122. Available from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789264013896-en.pdf?expires=1648347871&id=id&accname=ocid194789&checksum=CD16589450EEE372A88A492379A7BDAC

McNabb, R. (1999). "The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emigrant remittances". *World Development*, 27, 1493-1502.

Melkonyan, T. A and D. A. Grigorian (2012). "Microeconomic implications of remittances in an overlapping generationsmodel with altruism and a motive to receive inheritanc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8, 1026-1044.

Rapoport, H. and F. Docquier (2005). *The Economics of Migrants' Remittances* (IZA Discussion Paper No. 1531), Bonn: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Ricketts, J. R. (2011). *Impact of macroeconomic shocks on remittance inflows to Jamaica: A VECM approach*. Bank of Jamaica Working Paper. Available from https://www.boj.org.jm/uploads/pdf/papers_pamphlets/papers_pamphlets_Impact_of_Domestic_Macroeconomic_Shocks_on_Remittance__inflows_to_Jamaica__A_VECM_approach.pdf

Sayan, S. (2006), *Business Cycles and Workers' Remittances: How Do Migrant Workers Respond to Cyclical Movements of GDP at Home?* (IMF Working Paper, WP/06/52), Available from https://www.elibrary.imf.org/view/journals/001/2006/052/001.2006.issue-052-en.xml

Schiopu, I. C. and N. Siegfried (2006). *Determinants of workers' remittances: Evidence from the European neighbouring region*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668), Frankfurt am Main, Germany.

Schrooten, M. (2005). *Bringing home the money - What determines worker's remittances to transition countries* (Discussion Paper Series A No.466),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Available from http://hermes-ir.lib.hit-u.ac.jp/hermes/ir/re/13422/DP466.pdf

Taylor, J. E. (2004). "Remittances, savings, and development in migrant-sending areas". *International Migration: Propects and Policies in a Global Market*, 157−173. Available from https://oxford.universitypressscholarship.com/view/10.1093/0199269009.001.0001/acprof-9780199269006-chapter-9

United Nations (2022),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2*, Available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wp-content/uploads/sites/45/publication/WESP2022_web.pdf

World Bank (2021), *Recovery: COVID-19 Crisis through a Migration Lens*,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35, World Bank. Available from https://www.knomad.org/publication/migration-and-development-brief-35